

## 도박열정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연구

김 영 훈<sup>†</sup>                      이 영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도박열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738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도박열정척도,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검사(K-SOGS), Beck의 불안척도(BA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박열정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도박열정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2요인(강박적 열정, 조화로운 열정)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도박열정척도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연구 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도박열정, 신뢰도, 타당도

---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 영 훈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산43-1  
FAX : 032-345-5189 / E-mail : paper353@catholic.ac.kr

도박이란 예측 불가능한 결과나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기대하여 금전을 포함한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하는 게임이나 행위를 말한다. 병적 도박이란 1980년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II)에 충동조절장애로 포함되었고 DSM-IV(1994)에는 병적 도박으로 분류되어 있다. DSM-IV의 정의에 따르면 병적 도박이란 도박에 대한 집착, 금단현상, 흥분추구와 내성, 통제시도 실패, 거짓말, 일상생활 및 직무생활에서의 부적응, 재정파탄 등의 증상과 문제를 수반하는 중독성 질환이다. 병적 도박으로 인한 피해는 도박자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주변 인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적 측면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APA, 1994; Lesieur & Rosenthal, 1991; Lorenz & Yaffee, 1989).

열정이란 자신의 목표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좋아하는 대상이나 활동을 향한 높은 수준의 접근경향성을 말한다. 열정이란 개념은 임상심리학의 영역에서 오랜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해 왔었다. 최근에 이르러 일부 심리학자들이 열정의 동기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열정이란 자신의 정체감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의해서 강박적 열정과 조화로운 열정으로 구분된다. 즉, 강박적 열정은 열정적 활동을 통제된 방식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정체감을 형성하는 반면, 조화로운 열정은 열정적 활동을 자율적 방식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Goldberg, 1986; Marsh & Collet, 1987).

Rousseau, Vallerand, Rattelle, Mageau 와 Provencher (2002) 등은 병적 도박의 연구들에서 열정의 개념을 적용시켰다. 도박과 관련된 열정의 개념은 도박행위, 도박 행위 중 정서변화, 사고의 상태, 도박 후 나타나는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도박과 관련된 열정개념은 도박에서 나타나는 심

리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도박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 대인관계 문제, 범죄 행위 등과 관련된 극단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일반 스포츠나 직무와 관련된 열정 척도를 도박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 열정척도에서 도박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박 열정척도를 제작과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도박장이나 도박행위의 특성상 도박행위를 측정할 간편형 도박 열정척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Vallerand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강박적 열정은 통제할 수 없는 흥분감 및 수용감 혹은 자존감과 같은 활동에 몰입함으로 인해 내적 심리 상태 및 외적 상황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며, 개인을 통제하려하고 강요하는 상황을 유발시킨다. 또한 자신이 참여하는 여러 활동들에 있어 갈등을 유발시키고 부적절하고 불편한 심리상태를 초래한다. 조화로운 열정은 외부 대상에 과도한 심리적 집착을 보이지 않고 활동 대상의 중요성을 지각할 수 있으며 자연스런 방식으로 자신의 열정적 활동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조화로운 열정은 개인에게 동기적 힘과 활력을 제공한다. 조화로운 열정은 개인적 활동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편안함 혹은 자연스런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Rousseau 등(2002)은 도박열정을 강박적 열정과 조화로운 열정으로 구분하였다. 강박적 열정은 병적 도박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높은 강박적 열정은 도박에서 생기는 결과들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화로운 도박열정은 도박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심리적 고통이나 압력에서부터 상대

적으로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즉, 강박적 열정은 도박에서 나타나는 부적 정동 및 도박횟수, 도박비용증가, 죄책감 및 부채 등 부적 결과들과 관련되어 있다. 조화로운 열정은 도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 결과뿐만 아니라 부적 정동 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과 관련된 강박적 열정은 불안감, 부적 정동, 개인에게 도박행위에 대한 압력 및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야기시킨다. 또한 도박의 빈도, 도박관련 피해, 병적 도박의 정도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강박적 열정은 도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안감 및 부적 정동을 유발하고 도박을 마친 후 개인에게 나타나는 죄책감, 불안감, 다양한 부적 정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신경증적 경향성, 대인관계의 갈등, 우울감, 지각된 스트레스 등과 관련되어 있다. 조화로운 도박열정은 불안감과 같은 부적 정동을 유발하지 않으며 도박관련 부적 정동, 도박중독, 도박 후 발생하는 부적 결과들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조화로운 도박열정은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도박에 대해서 보다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적 속성을 지니며 개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Ratelle, Vallerand, Mageau, Rousseau & Povencher, 2004; Rousseau et al., 2002; Vallerand et al., 2003).

세계적으로 도박관련 폐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병적 도박자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의 70-90%가 한번 이상의 도박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병적 도박자의 유병율은 미국의 경우 1-2%, 캐나다 1.7%, 호주 7.1%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1990년 이후 도박이 합법화되면서 대학생,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의 도박인구가 급증하고 있다(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좌현숙, 1999; Ladouceur, 1991; Walker & Dickerson, 1996).

도박관련 국내 연구로는 도박동기, 비합리적 신념, 병적경마도박, 병적 도박자의 심리적 특성, 사이버 도박, 병적 도박의 신경생물학, 약물 및 인지행동치료, 정신장애자의 도박성향,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검사의 표준화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이후 도박 산업의 확대 및 도박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박중독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심리상담센터, 의료기관 등 정신보건을 담당하는 여러 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진단, 치료 및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정적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도박열정과 관련된 효율적인 척도로써 도박자의 병적 도박 수준, 도박열정, 도박에 대한 정서적 상태 및 도박 후 나타날 부적 결과들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박열정척도가 도박에 대한 열정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도박관련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심리학적 차원의 연구,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예방 등 많은 영역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열정척도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대학생 및 일반성인 집단에 실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 방 법

### 대상

서울, 경기 및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일반성인 847명 중 무응답 및 질문지 작성에

서 한 문항이라도 빠트린 109명을 제외한 73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평균연령은 29.95세 ( $SD=10.51$ )이었으며 남자는 29.68세 ( $SD=11.48$ ), 여자는 30.15세 ( $SD=9.74$ )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4명(0.4%), 중졸 9명(1.1%), 고졸 474명(56.0%), 초대졸 51명(6.0%), 대졸 이상 309명(36.5%)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 18명(2.4%), 봉급생활자 239명(32.4%), 자영업 27명(3.7%), 학생 305명(41.3%), 주부 47명(6.4%), 기타 102명(13.8%)으로 나타났다.

조사 성격상 도박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인 대학생 및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 표집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의 대학교 각 2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일반성인의 경우 서울, 경기 및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작성은 연구보조원이 설명에 따라 자기기입식으로 작성되었다.

#### 측정도구

##### 도박열정척도 (GPS)

도박에 대한 열정을 측정하는 검사로 Rousseau 등(2002)이 Vallerand, Blanchard, Koestner와 Gagné(2001)의 열정척도를 도박에 적용시켜 만든 척도이다. 척도 번안 및 문항 수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도박열정척도의 10개 문항을 3명의 임상심리학 석사 및 임상심리학 박사 1인이 번역하였다. 다음으로 척도의 각 문항이 도박열정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써 적절한지를 임상경험이 10년 이상인 임상심리학 박사 1인이 검토하였다.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모든 문항이 도박관련 장면과 적합할 때까지 계속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임상심리전문가 2인이 동의할 때까지 반복되었다.

도박열정척도는 강박적 열정 및 조화로운 열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박적 열정 요인에는 통제력 상실, 강박적 성향, 정서적 밀착, 충동 등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조화로운 열정에는 다른 활동과 조화, 자질에 영향, 재미, 잊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 등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었다.

도박열정척도는 강박적 열정 및 조화로운 열정 각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도박열정척도는 Likert형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4:중간이다, 5:다소 동의한다, 6:동의한다, 7:아주 강력하게 동의한다)상 평정하도록 하였다. Rousseau 등(2002)의 연구에서 도박열정척도는 내적합치도가 강박적 열정은 .90, 조화로운 열정은 .76으로 나타났다.

#####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 검사(K-SOGS)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 검사(Korean Form of South Oaks Gambling Screening: K-SOGS)는 Lesieur와 Blume(1987)이 개발한 South-Oaks Gambling Screening을 최원철, 김경민, 오동열 및 이태경(2001)이 38명의 단도박회원과 155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검사이다. K-SOGS는 병적 도박과 관련하여 병적 도박의 수준, 병적 도박의 진단에 많이 사용되는 검사로 신뢰도 계수는 .95이다.

##### Beck의 불안척도(BAI)

Beck의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는 Beck와 Steer(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BAI의 한국판은 권석만(1997)에 의해서 한국어로 번안되어 그 심리측정적 특성이 조사된 바 있다. 내적합치도는 .93이며 반분신뢰도는 .89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BAI는 현재의 불안감을 평정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도박관련 부적 정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도박 열정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내적 구조를 살펴보고 도박열정과 관련이 있는 척도인 K-SOGS, BAI와 상관을 살펴보았다.

## 결 과

### 신뢰도

도박열정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한 결과,  $\alpha$ 계수는 .91로 매우 높았다. 각 요인별 문항-총점과 상관을 살펴보면 요인 1인 강박적 열정은 문항-총점상관이 .42에서 .69로 양호하였으며 요인 2인 조화로운 열정은 문항-총점상관은 .57에서 .74에 이르러 양호하였다. 하위 요인인 강박적 열정 및 조화로운 열정의 Cronbach  $\alpha$ 는 각각 .87와 .89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도박열정척도는 신뢰로운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 타당도

### 요인타당도

도박열정척도의 하위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통요인 분석 중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간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의  $\chi^2$ 검증 결과에서 본 연구의 자료가 공통요인모형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공통요인모형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1개 공통요인의 가설을 기반으로 요인을 1개씩 추가 설정하면서  $\chi^2$ 검증을 수행하였다. 공통요인모형이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chi^2$ 검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요인을 3개로 설정한 경우 제 1요인으로 문항 4가 해당되며 제 2요인에는 문항 6에서 문항 10

표 1. 도박열정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2	나는 정서적으로 도박에 매달려 있다	.82	-.56
5	충동이 강하여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81	-.60
3	도박을 하고자하는 마음을 통제하는데 어렵다	.80	-.53
4	나는 도박에 대해 거의 강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72	-.44
1	도박없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66	-.44
10	도박이 나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었다	.53	-.89
8	내가 접한 도박에서 새로운 것들이 보다 재미를 가졌다 주었다	.55	-.82
7	생활에서 도박이 다른 활동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62	-.78
9	도박이 내 자신의 자질에 영향을 미쳤다	.69	-.76
6	도박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나에게 제공한다	.69	-.73
설명변량(%)	70.36	59.05	11.31

에 이르는 5개 문항이 해당되었고 제 3요인으로 문항 1, 문항 2, 문항3 및 문항 5가 해당되었다. 요인을 3개로 설정한 경우 제 1요인에는 문항 4만 단독 문항으로 요인을 구성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요인 모형이 2개로 최종 설정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강박적 열정'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변량의 59.05%를 설명하였다. 요인 2는 '조화로운 열정'을 나타내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변량의 11.31%를 설명하였다. 2개 요인 모형으로 설명되는 변량의 합은 70.36%이었다. 본 연구의 전체 설명 비율이 70.36%로 나타났다.

#### 타 척도와의 상관

선행 연구들이 도박열정이 병적 도박과 관련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Ratelle et al., 2004; Rousseau et al., 2002; Vallerand et al., 2003). 아직 국내에 도박열정과 관련된 표준화 검사가 없기 때문에 강박적 열정 및 조화로운 열정을 다른 도박관련 척도와의 관련성 및 부적 정동을 검증하기 위해 K-SOGS와 BAI와 상관관계를 통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2. 강박적 열정, 조화로운 열정, K-SOGS 및 BAI와 부분상관

	강박적 열정 (조화로운 열정 통제)	조화로운 열정 (강박적 열정 통제)
K-SOGS	.26**	.23**
BAI	.18**	.01

K-SOGS=Korean Form of South Oaks Gambling Screening.

BAI=Beck Anxiety Inventory.

\*\*  $p < .01$ .

강박적 열정, 조화로운 열정, K-SOGS, BAI와의 부분상관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조화로운 열정을 통제한 상태에서 강박적 열정은 K-SOGS, BAI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724)=.26, p<.01$ ;  $r(724)=.18, p<.01$ . 강박적 열정을 통제한 후 조화로운 열정은 K-SOGS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724)=.23, p<.01$ . 강박적 열정과 조화로운 열정 모두 병적 도박의 정도를 측정하는 K-SOGS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강박적 열정만이 BAI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K-SOGS에서는 5점 이상을 얻은 집단을 병적 도박자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K-SOGS상 5점 이상 얻은 93명을 병적 도박자로 분류하여 강박적 열정, 조화로운 열정, K-SOGS 및 BAI와의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병적 도박자의 수준에 해당되는 집단은 총 93명으로 강박적 열정의 평균점수는 10.05( $SD=5.12$ )였으며 조화로운 열정의 평균점수는 13.47 ( $SD=6.58$ )이었다. 표 3에 의하면 강박적 열정은 K-SOGS와 BAI와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93)=.39, p<.01$ ;  $r(91)=.23, p<.05$ . 조화로운 열정은 K-SOGS, BAI와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93)=-.12, ns$ ;  $r(91)=-.09, ns$ .

본 연구의 전체집단과 달리 병적 도박자에 해

표 3. K-SOGS에서는 5점 이상을 얻은 집단에서 강박적 열정, 조화로운 열정, K-SOGS와 BAI간 부분상관

	강박적 열정 (조화로운 열정 통제)	조화로운 열정 (강박적 열정 통제)
K-SOGS	.39**	-.12
BAI	.23**	-.09

K-SOGS=Korean Form of South Oaks Gambling Screening.

BAI=Beck Anxiety Inventory.

\*\*  $p < .01$ .

당하는 K-SOGS점수 5점이상인 집단에서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강박적 열정요인만이 K-SOGS, BAI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병적 도박자집단에서 강박적 열정이 SOGS와 상관을 나타낸다는 이전 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해된다(Ratelle et al., 2004; Vallerand et al., 2003).

## 논 의

열정이란 자신의 목표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좋아하는 대상이나 활동에 높은 수준의 접근경향성을 말한다. 도박열정은 강박적 열정 및 조화로운 열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박열정척도는 열정이란 개념을 도박에 도입한 척도로써 병적 도박자, 문제성 도박자, 도박경험이 없는 성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병적 도박과의 관련성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열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도박열정척도에 대해 738명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양호하였다. 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한 결과,  $\alpha$ 계수는 .91로 매우 높았다. 각 요인별 문항-총점과 상관을 살펴보면 요인 1인 강박적 열정은 문항-총점 상관이 .42에서 .69로 양호하였으며 요인 2인 조화로운 열정은 문항-총점상관은 .57에서 .74에 이르러 양호하였다. 하위 요인인 강박적 열정 및 조화로운 열정의 Cronbach  $\alpha$ 는 .87와 .89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도박열정척도가 신뢰로운 척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Rousseau 등(2002)의 연구에서 조화로운 열정의  $\alpha$ 계수 .76로 나온 것에 비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조화로운 열정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타당도 및 도박관련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요인 분석 결과 2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70.36%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Rousseau 등(2002)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변량의 56.3%를 설명한 것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Rousseau 등(2002)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이 47.94세(SD=16.33)로 비교적 장년층을 중심으로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표집을 한 반면 본 연구에서의 표집된 평균연령은 29.95세(SD=10.51)로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표집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이 어릴수록 사회경제적 지위, 수입, 여가시간 및 활동범위 등의 변인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결과는 Rousseau 등(2002)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요인구조와 문항구성은 일치되게 나타났다. 즉, 강박적 열정 요인은 통제력 상실, 정서적 밀착, 충동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조화로운 열정은 다른 활동과 조화, 재미, 다양한 경험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강박적 열정 및 조화로운 열정이라는 두 요인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 도박열정척도는 2요인 모델을 적절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강박적 열정 및 조화로운 열정과 병적 도박, 문제성도박 및 정상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K-SOGS와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다. 표 2에 의하면 강박적 열정의 경우 K-SOGS와 .26의 상관뿐 아니라 조화로운 열정도 .23의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Ratelle 등(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강박적 열정과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검사간  $r=.58$  ( $p<.05$ )의 상관을 보인 반면 조화로운 열정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K-SOGS에서 5점이상 즉, 병적 도박자 수준에 해당하는 집단 을 전체 집단에서 분리하여 상관을 보았을 때, 강박적 열정은 K-SOGS와 BAI와의 유의미한 정 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조화로운 열정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Rattelle 등(2004)의 선행연구 와 일치한다. 병적도박자 수준에 해당하는 집단 에서 강박적 열정과 달리 조화로운 열정은 도박 에서 얻어지는 결과보다는 도박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니다. 즉 조화로운 열정에서는 도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 에 도박에서 나타난 금전적 손실같은 부정적 결 과를 억제하거나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Vallerand 등(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병적 도박자의 수준에 해당하는 집단의 경우 강박적 열정점수가 도박행동, 병적 도박 성향, 금전적 문제, 부적정동, 죄책감, 도박 후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또한 도박행위를 수행하도록 내적 압력을 행사하고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야기시 키며 도박행위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죄책감, 불 안감, 다양한 부적 정동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병적 도박자에 해당하는 집단에서 조화로운 열정은 부적 정동을 유발시키지 않았 으며 도박 후 발생하는 부적 결과들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조화로운 열정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 및 도박에 대해 보다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를 주 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전체 집단과 도박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에서 조화로운 열정조차도 K-SOGS, BAI와 상관을 보였다. 도박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에서 는 조화로운 열정조차도 도박에 대한 태도, 병적 도박의 심각도, 도박후 발생하는 부적 결과 등의

시사하는 지표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 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전체 집단에서 선행연구들과 달리 조화로운 열정이 K-SOGS, BAI와 유의미한 상관 을 유의미하게 보이고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도박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도박에 대한 인식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지 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도박에 대한 인식이 긍정 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차원보다 부정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김석준과 강세현(1996)의 연구에 서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박자와 도 박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매우 부정적이 해 석을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도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도박의 건전하고 긍정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가족 을 해체시키며 경제적 파탄으로 이끄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피험자 뿐 아니라 다양한 도박에 참여한 피험자, 병적 도박자 들을 포함시켜 도박경험이 전혀 없는 집 단의 조화로운 도박열정과 도박중독자, 도박경험 자 등의 조화로운 도박열정의 유사점과 상이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연령 대 별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 이 필요하겠다.

요약하면 도박열정척도는 내적합치도를 통해 신뢰롭고, 요인분석 및 K-SOGS, BAI와의 상관결 과 타당한 척도라 하겠다. 도박열정척도의 사용 에 의해 그동안 모호하게 정의되어 왔던 도박에 대한 열정개념이 보다 분명히 구분될 수 있었다. 특히 도박과 상관이 높다고 보고된 강박적 열정 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된다. 후속 연구들에서는 도박열정 중 강박 적 도박열정 요인을 사용하여 도박중독자, 문제



성도박자 및 정상집단간 변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도박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에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도박열정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여 주었다. 외국에서 사용되는 도박열정척도를 국내 도박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도박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단도박의 심리적인 요인, 인지적 오류와 관련된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생의 표집수가 적다는 점과 학년별로 체계적인 표집 방식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점으로 이는 전체 대학생의 도박 열정과 관련된 특성 및 성향을 일반화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대학생 표집 규모를 대단위로 수집하고 표집방식에서도 층화표집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도박열정을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기 위해 대조집단으로 도박장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 병적 도박자, 도박으로 치료받은 후 단도박 상태에 있는 집단, 단도박 치료후 재발자 집단 등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광호, 신정호, 이만홍. (1988). 일부 대학생 집단에서의 주정중독, 담배의존 병적 과식증 및 병적도박의 유병율과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7, 1042-1052.

김교현, 권선중 (2003). 병적 도박자의심리적 특성 및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261-277.

김석준, 강세현. (1996). 제주지역의 도박실태에 대한 예비적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 12, 553-579.

권석만. (1997). 불안장애의 정신병리 평가, *정신병리학*, 6, 37-51.

신광철, 이재광, 이길홍. (1991). 입원한 정신장애자의 도박성향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0, 849-860.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좌현숙.(1999). 현대인의 사회적 부적응 : 도박성향에 관하여. *삼성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99, 1-32.

이흥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도박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완철, 김경빈, 오동열, 이태경. (2001). 한국형 사우스오크 병적 도박 검사 표준화에 대한 예비연구. *중독정신의학*, 5, 46-5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eck, A. T., & Steer, R. A. (1990). *Manual for the Beck Anxiety Inventory*. San Antonio: Psychological Corporation.

Goldberg, C. (1986). The interpersonal aim of creative endeavor.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0, 35-48.

Landouceur, R. (1991). Prevalence estimates of pathological gamblers in Quebec, Canada.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6, 732-734.

Lesieur, H. R., & Blume, S. B. (1987). The South Oaks Gambling Screen(SOGS): A new instru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pathological

- gambl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4, 1184-1188.
- Lesieur, H. R., & Rosenthal, R. J. (1991). Pathological gambling: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7, 5-37.
- Lorenz, V. C., & Yaffee, R. A. (1989). Pathological gambling: Psychosomatic, emotional and marital difficulties as reported by the spouse.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4, 13-26.
- Marsh, P., & Collet, P. (1987). Driving passion. *Psychology Today*, 21, 16-24.
- McCown, W. G., & Chamberlain, L. L. (2000). *Best possible odds : Contemporary treatment strategies for gambling disorders*. New York: Wiley.
- Ratelle, C. F., Vallerand, R. J., Mageau, G. A., Rousseau F. L. & Povencher, P. J. (2004). When passion leads to problematic outcomes: A look a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0, 105-119.
- Rousseau, F. L., Vallerand, R. J., Ratelle, C. F., Mageau, G. A. & Provencher, P. J. (2002). Passion and Gambling: On the Validation of the Gambling Passion Scal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8, 45-66.
- Vallerand, R. J., Blanchard, C. M., Koestner, R. & Gagné, M. (2001). *Les passions de l'âme :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s*. Manuscript in preparation.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Montréal, Canada.
- Vallerand, R. J., Blanchard, C. M.,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F., Leonard, M., Gagné, M.,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s de l'â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756-767.
- Walker, M. B., & Dickerson, M. G. (1996). The prevalence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2, 233-249.

원고접수일 : 2004. 6. 23  
게재결정일 : 2004. 9. 15

##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ambling Passion Scale

Young-Hoon Kim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Gambling Passion Scale(GPS). GPS, Korean Form of South Oaks Gambling Screening(K-SOGS), Beck Anxiety Inventory(BAI) were administered evaluated with adults(N=738).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Cronbach  $\alpha$  of GPS was .91. Factor analysis of GPS revealed that 2 factor(obsessive passion, harmonious passion) model was appropriated. The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of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gambling passion, reliability, validity*